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7월 23일

CUOMO 주지사, 애완동물 절도 및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신의 것이 아닌 개, 고양이 또는 기타 애완동물을 훔치고, 해를 가하고 또는 이동시키려한 사람들에 대해 최고 벌금을 200 달러에서 1,000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애완동물은 가족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애완동물 절도는 특별히 비정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개, 고양이 및 기타 동물들을 훔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엄중 단속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활동을 위해 법안의 발의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최고 형벌은 개목걸이 또는 신분증을 없애버리는 사람, 잡혀 있거나 끌고가거나 또는 입마개를 제대로 씌운 상태에서 애완동물을 유인하거나 붙잡고 있거나 학대하는 사람 또는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동물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1970년 이후로 벌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형벌 방침은 현재의 최고 200 달러 및/또는 6개월 수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Mark Grisant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도난 당하는 등 큰 상심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줄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램은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으로 이러한 잠재적인 절도 행위가 근절되고 동물들이 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힘을 합쳐 이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애완동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제 주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법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teve Otis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바램은 처벌 강화로 동물 절도 건수가 줄어들고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뒤따른 잔인함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로부터 애완동물을 절도를 막는 것이 절실합니다.”

AKC(American Kennel Club)에 따르면 2013년 애완동물 절도 건수가 590건이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절도 건수보다 31% 증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대 벌금 한도를 높여 애완동물 절도 행위를 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